

# 흡연권이란 없다

담배가 건강에 대단히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혐연권(嫌煙權)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혐연권은 담배의 간접피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의 주장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흡연자들 중에는 혐연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흡연권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 간섭받음 없이 자유스럽게 흡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어떤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주장하는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권리의 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러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는, 권리는 그 사회의 여러 규범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 곳에서나 배설할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흡연권의 타당성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자.

첫째, 흡연자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중 흡연하는 사람은 약 33%정도 된다. 이들에 의하여 그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간접 흡연으로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한다. 그 피해의 대상자는 주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이다. 세계 금연의 날 주제가 “공기를 맑게 하자, 또는 담배 연기로 공기를 더럽히지 말자”이다. 흡연자는 깨끗한 공기를 오염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눈과 코에 고통을 주며, 담배 냄새가 여기저기에 배어 불쾌감을 준다.

우리 나라 어디를 가나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고 지내기가 힘들다. 흡연자들이 피우고 버린 담배꽂초 역시 우리 나라 전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다. 즉 담배꽂초로 인한 환경의 오염이 심각하다. 그 환경오염을 누가 낸 세금으로 청소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한 경우 길에서 담뱃불로 다른 사람의 손이나 노출된 부분에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의학교과서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마약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고 있다.  
단지 마약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흡연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일순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실

얼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집 베란다에서 또는 흡연실에서 혼자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흡연자들은 경제적으로 비 흡연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입힌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의 10%는 담배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화재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흡연자들만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 병든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보험료를 흡연자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만일 흡연하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다면 아마 의료보험료의 3분의 1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흡연자들에 의하여 항상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를 위해 상당한 양의 의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흡연권이 현재 우리의 윤리규범에 맞는지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담배 연기 속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수 천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또한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도 들어 있다. 따라서 흡연행위는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서서히 자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담배는 마약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의학교과서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마약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고 있다. 단지 마약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흡연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해칠 권리, 자살 할 권리 그리고 마약을 탐닉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과연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흡연 권이란 없다.